

INTERVIEW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이라는 목표에 매진”

지난 2007년 6월 개소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이하 AURI)'는 정부 부처, 관련 학회 및 협회의 1여 년에 걸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탄생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과 국토교통부 내 건축정책관 신설로 건축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이러한 건축정책 발전과 법·제도 개선 등의 성과 뒤에는 AURI의 많은 공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래지향적 건축도시공간시스템 구축 지원과 건축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탄생한 AURI는 지난 해 9월 제3대 소장에 제해성 교수(아주대학교 건축학부)를 선임했다.

본지는 AURI 제해성 소장을 만나 건축 전반에 대한 담론과 건축정책의 나아갈 방향, 연구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주요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美 MIT 건축학(도시설계) 석사
— 美 펜실베이니아대 건축학 박사

—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현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 현 아주대학교 공과대학장

— 현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 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총괄기획가

지난 해 9월 AURI 3대 소장에 취임하시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가까이 국책연구소 수장으로 지내신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구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잘 협조해 주어서 만족스럽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연구소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성실하게 봉사하겠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과 학회에서 실용적인 전문 지식 탐구와 실무 적용을 강조해왔으나 이제는 국책연구소 운영을 맡은 만큼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내부자원을 정책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 및 도시공간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소장으로 선임되신 후 대학에서 강의는 계속하고 계시는지요. 아울러 학생들과의 생활은 어떠신지.

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극복하여야 할 지혜를 일깨워 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학장, 처장, 대학원장 등의 학교 보직을 맡아 대학운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학문적인 연구와 대외적인 봉사를 통하여 실용적인 지식탐구를 강조해 왔습니다.

학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위원장 등의 보직을 맡아 전문분야의 학술적 발전, 사회적 기여, 회원참여와 단합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학교 강의는 중단하였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직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은 'AURI'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연구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은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건축과 도시공간의 실제 수준은 우리나라의 향상된 경제력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물과 도시공간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전한 삶과 복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도시정책이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이러한 정부정책의 개발과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국민들이 일상으로 접하는 생활공간, 복지공간, 그리고 문화공간 등의 공공적 가치가 증진되고 디자인 수준이 개선되어 국민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복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 규모(연구원이나 직원 등)는 어떻게 되며, 연간 연구용역 건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요.

현재 연구소에는 정규직 약 35명 정도를 포함하여 10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조직은 크게 건축도시연구본부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실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본부 산하에 국가한옥센터와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소 고유사업으로서 10여개 내외의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AURI 건축도시포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학술문헌 출판사업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의 일반사업으로 국토·도시·건축 기록정보 관리사업, 보행환경 평가지원사업,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의 수탁연구과제는 매년

15건 정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국토교통부 의뢰연구가 많지만 최근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등으로 수탁요청 기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국토부와 '건축행정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면?

국토부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 연구소는 국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및 인허가 정보를 직접 제공 받아 연구 및 정책개발에 활용함과 동시에 건축행정정보의 국가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행정정보의 활용을 위해 연구소에서는 우선 국토부 건축통계 작성 기준의 표준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기존에 제공되지 못했던 예측·분석통계 신설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활용한 '녹색 건축통계'의 개발을 위한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연말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3.0'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국토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설립된 '국가한옥센터'의 주요 추진 사업과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립된 지 3년차가 되어가는 국가한옥센터에서는 '문화자산으로서의 한옥', '녹색주거환경으로서의 한옥',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한옥'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옥 지식 체계화를 위한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위해, 국가한

옥센터에서는 한옥 보급 및 산업화 지원 연구, 한옥 보전 및 문화육성 지원 연구, 한옥 분포 및 산업동향 조사 연구, 한옥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가한옥센터의 기반조성단계로, 국립산림과학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한옥관련 공공기관(문화재청 및 한국관광공사 등)에 한옥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기까지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 정책방안 및 기준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옥정책과 한옥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연4회의 한옥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요 추진사업의 성과물을 한옥정책브리프, auriM한옥 및 단행본 등으로 발간하여 한옥관련 공공기관, 학·협회, 실무자, 한옥 거주자 및 일반인에게 홍보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울러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기본법이 이러한 건축물의 공공성 향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건축문화 진흥, 국토환경의 경쟁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입법되었고, 이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투자와 노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건축정책에 있어 최대의 문제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정책으로 비춰지기보다는 건축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정책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공익, 즉 국민과 사회가 어떻게 이롭게 될 것 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비전 및 목표 |

국민행복을 위한 공간정책 아젠다
선도기능 강화

과제 1 생활밀착형 공간정책 관련 연구 강화
과제 2 낙후된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세계 선도 및 지원 연구 강화
과제 3 연구의 정책기여도 및 실무활용도 강화
과제 4 대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연구인력의 핵심역량 강화 및
브랜드가치 향상

과제 5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 및 연구사업의 전문성 제고
과제 6 연구조직 및 연구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

고객 맞춤형 연구성과 확산 및
정보제공 서비스 확충

과제 7 고객 맞춤형 연구성과 보급 및 확산
과제 8 건축·도시정보 확충 및 정보제공서비스 강화

참여형 의사조정체계 기반의 능동적 조직문화 구현

과제 9 창의적이고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과제 10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

좋은 건축,
건강한 도시공간,
행복한 국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생활공간, 복지공간,
문화공간의
공공적 가치구현과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합니다.

